

반려동물 특화 도시재생 주목

임실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진 지역특화 부문 '우수상'

의견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임실군 오수면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을 특화한 도시재생 사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수지구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주관한 '2024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역특화 부문 우수사례(우수상)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오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인 지역특화 도시재생 모델로 인정받음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2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의견(義犬)의 고장 오수, 같이 함께



잘 살아보시게'라는 슬로건 아래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이다.

오수의 '의견 설화'를 지역 유산으로 활용해 반려동물 산업, 관광, 교육을 결합한 특화 전략을 통해 지역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반려동물 교육 공간인 '반려스쿨', 반려동물 소품 제작 공장 '반려하우스', 반려동물 특화 거리 조성 등이 있다.

또한, 노후 주거지와 골목길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발표한 이수용 오수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역특화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완료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오수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임실군이 반려동물 산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지난 2일 삼치체육관에서 '제74주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제12회 순창군 위령제'를 개최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순창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순창군이 지난 2일 삼치체육관에서 '제74주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제12회 순창군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김복영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장, 유병홍 순창군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원과 보존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식전행사로 문을 연 이번 위령제는 전문 무용수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달래는 의미 깊은 진혼무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이어진 제1부 전통제례는 순창향교 유양회 전교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가 초헌관을, 손준석 군의회회장이 아헌관을, 유병홍 순창군유족회장이 중헌관을 맡아 엄숙하게 제를 올렸다.

아울러, 제2부 추모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및 유족 소개가 이어졌

으며, 그동안 순창군 유족회가 진행해 온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과 위령제 준비 과정이 상세히 보고됐다.

유병홍 순창군 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7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많다"면서 "이번 위령제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위령제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고혼을 달래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의 힘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유족들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고 진실된 용서와 화해를 통해 대통합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위령제는 한국전쟁의 비극적 역사를 되새기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추모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민원처리기간 단축

사전심사 청구제 활성화

남원시가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최소한의 구비 서류 제출만으로 사업 시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가 완료된 민원은 정식 접수 시 사전 심사청구에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돼 민원 처리 기간은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심사 대상 사무 목록 및 처리 절차는 남원시 누리집 홈페이지 행정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는 남원시청 민원실 또는 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내년 노인일자리

신규 수행기관 공개모집

남원시는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신규 수행기관을 오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발굴을 위해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5,100명 이상의 어르신 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2024년도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25명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으로, 4대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야 하고, 종교시설, 임의단체(동호회, 전우회, 부녀회 등) 및 경로당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누리집(www.namwo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8일까지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작품 25일까지 모집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25일까지 관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2024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화재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교 및 가정에서 불조심을 슬신수범하는 분위기로 조성하고자 실시하며, 공모전 주제는 화재예방의 필요성 등 화재안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4절지에 손그림 포스터를 그려 1인 1 작품을 접수하면 되고, 참가자는 남원 관내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남원소방서 대응예방과(063-630-8244)나 소속 학교로 제출하면 되고, 공모된 작품은 11월 말 남원소방서 예산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을 선정해 전라북도 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나형철 예방안전팀장은 "많은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간지원조직 통합·운영 효율화

남원시,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농업 분야, 도시재생 분야, 공동체 분야 등 다양한 각 분야에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형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합의 범위와 체계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추진해 왔다.

최근 중앙정부는 정책의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있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각종 공모사업도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연계 협력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먼저 중간지원조직을 관리하는 행정 부서와 중간 조직 간의 워크숍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통합 운영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협력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전환하면 남원의 지역 현황 및 정책 추진 정보시스템을 구축(DB 수집 및 관리), 통합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개발이 가능해지며, 주민 지원창구 일원화로 원스톱 정책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응할 협력형 중간지원조직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의 일원화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과 행정의 가교 구실을 전달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민관협치를 구현할 수 있는 남원형 통합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농촌자원 활용 체험키트 6종 개발

늘봄학교 성과발표회서 첫 선

순창군이 지역 농촌자원을 접목한 창의적 체험 키트 6종을 선보여 주목 받고 있다.

군은 지난 2일 향토화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4 순창 늘봄학교 성과발표회'에서는 지역 특색이 담긴 교육 콘텐츠의 첫선을 보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키트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농촌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교육 전문가인 미래인재 육성 협동조합이 개발과

정에 참여해 교육적 전문성을 한층 더했다.

이번에 선보인 체험 키트는 △연꽃 열쇠고리 만들기(가이아농장) △별 열쇠고리 만들기(가인농장) △동물농장 만들기(농부보따리) △앵무새 조형물 만들기(앵무새팜) △토종종자 버 화분 만들기(압안스쿨) △공생 화분 만들기(자연다울수목) 등 총 6종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순창 늘봄학교 성과발표회'에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체험·전시 부스와 공연이 마련돼 축제의 장을 이뤘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인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인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인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